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77>

JCCT 2023-7-9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연구

A Study on Differences in Career Resilience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민혜영*, 송경섭**

Hea Young Min*, Kyung Seob Song**

요약 본 연구는 교육의 질을 담당하게 될 141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의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직업 환경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대처능력과 아이디어의 창출 능력을 가늠하는 진로탄력성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판단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성격의 유형 중 외향성, 성실성 성격의 경우, 평균점수 이상의 집단이 평균이하의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개방성 성격의 경우는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에서, 친화성 성격의 경우는 유연성, 미래지향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신경증 성격의 경우는 반대로 평균점수 이하인 집단이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예비유아교사들의 긍정적인 성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상담 등 포괄적인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을 시사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성격 유형, 진로탄력성, 예비유아교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ersonality of 141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will be in charge of the quality of education in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the career resilience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Career resilience, which measures the ability to cope with various problems and create ideas according to the work environment, was judged to b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successful operation of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mong personality types, in the case of extra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groups with average scores or higher scored higher in creativity, flexibility, challenging spirit, and future orientation than the groups below. In the case of the openness personality, higher scores in creativity, flexibility and challenging spirit, and in the case of the agreeable personality, the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flexibility and future orientation. In the case of the neurotic personality, on the contrary, the group with below average score received higher scores in flexibility, challenging spirit, and future orient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uggests the need for comprehensive programs such as various extracurricular programs, curricula, and counseling to help and promote the formation of more positive personaliti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 words : Personality Types, Career Resilienc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정희원,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정희원,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17일, 수정완료일: 2023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일

Received: May 17, 2023 / Revised: May 30, 2023

Accepted: July 1, 2023

**Corresponding Author: minyoung@kiw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 In Women's University, Korea

1. 서 론

예비유아교사란 잠정적 교사로 우리나라 3년제, 4년제 유아교육 및 보육전공 재학 중인 자들을 말한다 [1]. 교사는 유아기 아동들에게 있어 그 자체로 중요한 삶의 모델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유아들에게 교사는 생의 첫 교육 모델이며 형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갈 기초를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다양한 내적 특성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력은 유아들의 기초생활 학습 발달에 장기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아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개인 내적 요인들 중 성격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2][3][4]. 왜냐하면 성격은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고, 감정, 행동 양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5]. 이러한 교사의 성격특성은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는 특성으로 교사들의 각기 다른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독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이 된다[6][7]. 그리고 교사의 성격 특성은 정서적 분위기를 만드는 요인으로 학습자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고 선호하는 경향성에 따라 교사의 교수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8]. 따라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아교사의 지도방법에 영향을 미칠 교사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사들의 경우 교육환경이 다른 교육대상자들과는 다르게 하루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영유아들과 하루 종일 함께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근무환경으로 휴식공간이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다. 특히 교육의 대상인 영유아들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는 어린 나이이므로, 놀이학습 환경 속에서 아동 하나하나의 안전과 보호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직업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의 경우 대학 입학 시 교직과정을 선택하여 교사로서 다양한 훈련을 받고 교육현장에 투입되나, 실제적인 교육환경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다른 교육과정과는 다른 순발력 있는 문제해결능력, 심리적 탄성, 매순간 학습자에게 모델이 되는 긍정적 성향을 갖추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 탄력성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적응의 결과로[9][10] 힘든 경험이나 극복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주의집중 시간이 짧으며, 항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하는 유아들과의 일상에서 유아교사가 갖는 심리적 탄력성은 교사-유아 간 질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탄력성 중 특히 진로탄력성은 London[11][12]이 최초로 도입한 개념으로 진로에 관한 역경이나 고난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개인이 이것을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하루일과에서 수많은 문제와 해결과제 앞에서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이 심리적 탄력성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유아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탄력성이 된다. 본인이 선택한 유아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갖게 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심리적 요소라 여겨진다. 이러한 진로탄력성은 개인의 성격적 특질이기도 하나 학습의 결과이기도 하여[13], 학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14][15]. 진로탄력성의 개념은 현재 다친 진로에 대한 사건만을 중심으로 다루기보다는 미래사회에서의 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창의성 능력, 목표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하는 미래지향성,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는 도전정신, 문제대처 방법의 유연하고 적절한 대처 능력인 유연성 등을 주요 변인으로 삼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교수학습과정과는 다르게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운영 이외에 전인적인 발달 양상을 모두 책임지고 스스로 발달의 롤모델로서 삶의 기본생활습관 전반을 전해주어야 하는 유아교사들의 진로에 대한 심리적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질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들의 발달을 도모하는 유아교사들의 성격에 따른 직업 환경에 맞는 문제해결 대처 능력과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는 교사들의 진로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의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탄력성의 요소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성격 맞춤형 진로탄력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의 외향성 성격에 따라 진로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예비유아교사의 개방성 성격에 따라 진로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3. 예비유아교사의 친화성 성격에 따라 진로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4. 예비유아교사의 성실성 성격에 따라 진로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5. 예비유아교사의 신경증 성격에 따라 진로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141명이다. 학년별 연구대상의 분포로는 1학년 42(29.8%)명, 2학년 38(26.9%)명, 3학년 36(25.5%)명, 4학년 25명(17.7%)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예비유아교사의 성격 검사를 위해 Costa와 McCrae [17]가 개발 및 수정한 성격검사 NEO-PI-R(NEO-Personality Inventory-Revised)를 안창규가 우리말로 번안한 후 타당화 과정을 거친 간편 NEO 검사를 사용하였다[18]. 이 검사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의 5가지 성격요인을 알 수 있는 검사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요인에 대한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성격 유형별로 T점수를 내어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화하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점수보다 높은 집단으로, 평균점수보다 낮은 경우 해당 성격의 경향성이 낮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성격검사의 Cronbach's α 는 외향성이 .847, 개방성이 .784, 친화성이 .759, 성실성이 .847, 신경증이 .732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조아미, 진영선, 임정이[16]가 개발한 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창의성 6문항, 유연성 5문항, 도전정신 5문항, 미래지향성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창의성이 .918, 유연성이 .844, 도전정신이 .790, 미래지향성이 .88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인천광역시 유아교육과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탄력성과 성격검사에 대한 이해도와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후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을 통해 설문지를 검토 받았으며, 유아교육과 재학생 총 21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41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성격의 하위 요인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정도를 원점수를 50, 표준편차를 10으로 변환한 T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이상인 집단과 평균이하인 집단을 구분하였으며[18], 각 하위요소 집단별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탄력성의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고,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성격의 평균이상, 평균이하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1) 외향성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예비유아교사의 외향성 성격요인은 외향성 성격의 점수가 평균이상인 집단이 평균이하인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호하고 사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향성 성격의 평균점수가 높은 집단이 창의성($t=11.61, p<.01$), 유연성($t=20.19, p<.001$), 도전정신($t=29.56, p<.001$), 미래지향성($t=4.27, p<.05$)

모두에서 외향성의 평균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외향성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Table 1. Difference of Career resilience according to extraversion (N=141)

구분		외향성 성격		t값
		평균이상 (n=47명) M(SD)	평균이하 (n=94명) M(SD)	
진로 탄력 성	창의성	23.02(3.78)	20.70(3.82)	11.61**
	유연성	20.00(2.82)	17.67(2.94)	20.19***
	도전 정신	17.74(3.26)	14.97(2.63)	29.56***
	미래 지향성	15.81(3.62)	14.58(3.14)	4.27*
전체		76.57(10.23)	67.93(9.02)	26.23***

* $p < .05$, ** $p < .01$, *** $p < .001$

2) 개방성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표 2. 개방성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Career resilience according to openness to experience (N=141)

구분		개방성 성격		t값
		평균이상 (n=44명) M(SD)	평균이하 (n=97명) M(SD)	
진로 탄력 성	창의성	24.00(3.27)	20.32(3.70)	31.88***
	유연성	19.43(2.88)	18.00(3.09)	6.74*
	도전 정신	17.16(3.28)	14.82(3.20)	11.02**
	미래 지향성	15.36(3.66)	14.82(3.02)	.78
전체		73.48(10.41)	68.48(9.55)	18.01***

* $p < .05$, ** $p < .01$, *** $p < .001$

예비유아교사의 개방성 성격요인은 개방성 성격의 점수가 평균이상인 집단이 평균이하인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하위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경험 자체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성향의 개방성 성격의 평균점수가 높은 집단이

창의성($t=31.88, p < .001$), 유연성($t=6.74, p < .05$), 도전정신($t=11.02, p < .01$)로 개방성의 평균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친화성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표 3. 친화성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Career resilience according to agreeableness (N=141)

구분		친화성 성격		t값
		평균이상 (n=68명) M(SD)	평균이하 (n=73명) M(SD)	
진로 탄력 성	창의성	22.03(3.89)	20.95(3.95)	2.62
	유연성	19.36(2.94)	17.58(2.99)	12.59**
	도전 정신	16.09(3.39)	15.72(2.89)	.49
	미래 지향성	16.00(3.31)	14.04(3.12)	12.86***
전체		73.49(10.41)	68.32(9.52)	9.44**

** $p < .01$, *** $p < .001$

예비유아교사의 친화성 성격요인은 친화성 성격의 점수가 평균이상인 집단이 평균이하인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유연성, 미래지향성 하위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적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친화적 성격의 평균점수가 높은 집단이 유연성($t=12.59, p < .01$), 미래지향성($t=12.86, p < .001$) 모두에서 친화성의 평균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실성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예비유아교사의 성실성 성격요인은 성실성 성격의 점수가 평균이상인 집단이 평균이하인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원칙, 규범, 규칙 등을 잘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실성 성격의 평균점수가 높은 집단이 창의성($t=16.68, p < .001$), 유연성($t=9.17, p < .05$), 도전정신($t=7.71, p < .01$), 미래지향성($t=41.38, p < .001$) 모두에서 성실성의 평균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실성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Table 4. Difference of Career resilience according to conscientiousness (N=141)

구분		성실성 성격		t값
		평균이상 (n=47명) M(SD)	평균이하 (n=94명) M(SD)	
진로 탄력 성	창의성	23.29(3.59)	20.56(3.82)	16.68***
	유연성	19.53(2.51)	17.90(3.22)	9.17**
	도전 정신	16.91(2.96)	13.86(3.21)	7.71**
	미래 지향성	17.26(2.34)	13.86(3.21)	41.38***
전체		77.00(8.44)	67.72(9.69)	31.15***

* $p < .05$, ** $p < .01$, *** $p < .001$

5) 신경증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표 5. 신경증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
 Table 5. Difference of Career resilience according to neuroticism (N=141)

구분		신경증 성격		t값
		평균이상 (n=55명) M(SD)	평균이하 (n=86명) M(SD)	
진로 탄력 성	창의성	20.94(3.60)	21.81(4.14)	1.62
	유연성	17.16(3.17)	19.27(2.76)	17.31***
	도전 정신	15.09(3.08)	16.41(3.07)	6.23*
	미래 지향성	13.80(3.13)	15.76(3.27)	12.35**
전체		67.00(8.96)	73.26(10.33)	13.60***

* $p < .05$, ** $p < .01$, *** $p < .001$

예비유아교사의 신경증 성격요인은 신경증 성격의 점수가 평균이상인 집단이 평균이하인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 하위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핍되어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고 위협적일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경증 성격의 평균점수가 높은 집단이 유연성 ($t=17.31$, $p < .001$), 도전정신($t=6.23$, $p < .05$), 미래지향성 ($t=12.35$, $p < .01$)에서 신경증의 평균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에 따라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의 차이를 상세히 다루어봄으로써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사에게 진로탄력성은 진로 관련 역경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신이 세운 진로목표를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역량으로[19],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및 미래지향성을 발휘하며 문제해결과 유아들과의 발전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이다. 예비유아교사의 성격 유형 중 사교적이며,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이 적절하게 발휘되는 외향성 성격과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으며 과제에 대한 조직력과 성취 욕구를 가늠하는 성실성 성격의 경우, 평균이상의 집단이 평균이하의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전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보다 외향적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행동기준이나 의무에 충실하며 책임감 정도를 의미하는 성실성 성격의 경향성이 높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진로탄력성이 높아 진로에 관련된 심리적 탄력성이 유연함을 의미한다[20].

그리고 개방성 성격의 경우는 평균이상의 집단이 평균이하의 집단보다 진로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이 높게 나타났고, 친화성 성격의 경우는 유연성, 미래지향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예비유아교사가 상상력과 창의력이 높고 아이디어가 풍부함을 의미하며, 타인을 신뢰하며 대인관계의 경향성이 온정, 신뢰, 이타 등의 관계형성이 보다 높은 친화성 성격의 예비유아교사가 진로탄력성 중 문제대처 방법이 유연하고, 목표를 가지고 미래 자신의 모습을 계획하고 탐색하는 능력인 미래지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16].

반면 정서적 안정성이나 적응의 수준을 의미하는 신경증 성격의 경우는 신경증이 낮은 평균이하의 집단이 평균이상의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자신의 스트레스 등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연한 사고, 과제에 대한 도전,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한 계획과 실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5가지 유형, 즉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성격의 경향성을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은 집단과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진로탄력성을 살펴봄으로써 성격의 성향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을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이전에 실시된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성격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태도, 진로태도성숙도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성격의 경향성의 높고 낮음에 따른 진로 관련 변인들의 정적상관, 부적상관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21][22].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예비유아교사들의 성격의 경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었으며, 교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진로탄력성에 있어 성격과의 관계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보다 긍정적인 성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상담 등 포괄적인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을 시사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의 경향성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를 양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의 유형들과 다양한 내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연구대상을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전반적인 성격의 경향성과 내적 요인들과의 관계성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방법이 병행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

[1] Y.E. Kim, H.S. Lee, "Basic Research on Personality Educa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r Child abuse preventio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Interventions*, Vol .7, No. 1, pp. 15-32, 2016.

[2] S. H. Jwa, and S. J. Eom,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thics and Empathy on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1, pp. 281-286, 2023.

[3] E.H. Hwa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Playfulness on Creative Role Performance", master's thesis at College of Broadcasting and Correspondence, 2020.

[4] L.R. Goldberg,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 - five Factor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6, pp. 1216-1229, 1990.

[5] S.R. Shim, "The Effects of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Perceiv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on Burnout", master's thesis at Sook Myung University, 2019.

[6] S.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of Role Performance Competence", master's thesis at Ewha Women's University, 1999.

[7] J.Y. Go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Big 5 Personality Traits and Resilience on Teaching Strategies for Behavioral problem: The Mediating Effect of the Teachers' Burn-out", master's thesis at Joung Ang University, 2022.

[8] J.R.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b 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Methods of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Care*, Vol. 16, No. 4, pp. 51-75, 2016.

[9] F.F. Flash, "Resilience: How to Bounce back When the Going gets rough", New York: Hatherleigh Press, 1997.

[10] K.R. Kang, S.H. Lee, D.H. Kim, and K.Y. Park, "Effects of Simulation-based Learning on Stress, Problem Solving Ability,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f Colleg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10, No. 4, pp 8-18, 2022.

[11] M. London,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8, No. 4, pp. 620-630, 1983.

[12] M. London,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24, No. 1, pp. 25-38, 1997.
- [13]B. Collard, J.W. Epperheimer, D. Saign, "Career Resilience in a Changing Workplace", Columbus, Information series No. 366., ERIC Clearing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Columbus, Ohio, 1996.
- [14]T.Y. Yeo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Junior College Students' Career Resilienc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nd Career Declaration Inaction", doctor thesis at Keimyung University, 2017.
- [15]H.S. Yoo,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Career Elasticity and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for Adult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Vol .14, No. 1, pp. 423-439, 2013.
- [16]A. M. Choi, Y. S. Jin, and J. A. L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Career Elasticity of College students", *Future Youth Journal*, Vol. 17, No. 2, pp 65-81, 2019
- [17]P. T. Costa,, and R. R. McMræe,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4, No. 1, pp5-13, 1992.
- [18]K.Y. Lee, "NEO-PI-R Factor Structure and Maladaptive Group Profile in Koreans", doctor thesis at Pusan University, 1996.
- [19]J.Y. Lee, "The Direction of Youth Career Education in Orepa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Society of Career Education, pp65-91, 2017.
- [20]J.M. Shin, "The Effects of Proactive Personality on Resilience & Career Resilience of Femail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2021.
- [21]J.S. Gu,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Temperament and Character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i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master's thesis at Kyungsung University, 2019.
- [22]J.Y. Lee, "S Students who are in Dance Major's Five-factor Models affect the Their Maturity of Career Attitude", master's thesis a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2016.